

미래에셋대우
노동조합

노동조합 소식지
울타리

2018년
4월 17일(화)

3,100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.

※ "울타리"는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노동조합 소식지 명칭

김용일 위원장 부산행 !!!

온갖 현안들로 바쁜 이 시점에 위원장을 부산으로 가게 만든 사람들은
도대체 누구인가?

녹록치 않은 금융시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!!!

지금 현재 당사의 외형은 커져가고 각종 부분에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
쉽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도 회사와 함께 커지고 있는지, 당당히 업계 1위라
말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.

안타깝게도 당사는 급여도, 복지도, 시스템도 당당히 업계 1위라 말하기
힘든 현실입니다.

하지만 우리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관리자의 잘못된 관리행태입니다.

연차 및 보건의휴가를 못쓰게 하거나 연차 사용 후 출근을 강요하는 관리자,
영업력 없이 직원들만 달달 볶는 무능한 관리자,

인사권을 무기로 직원들을 겁박하는 비겁한 관리자,

이 모든 것을 조종하며 이러한 행태를 더욱 더 부채질 하는 그 위의 관리자 등등

팀장, 지점장, 본부장의 존재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?

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뒷짐지고 앉아서 직원들만 달달볶으며

앵무새를 흉내내는 관리자가 진정한 관리자라 할 수 있습니까?

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"돌격 앞으로"를 외치고 자신은 뒤로 빠져있는
것이 진정한 리더입니까?

**노조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
일부 임원들에게 엄중 경고합니다.**

우리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
납득하지 못하는 행태를 일삼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
관리자들을 견제할 뿐입니다.

오히려 성과만을 위한 잘못된 줄세우기식 영업독려가 회사를 갉아먹고
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?

임원들만이 회사의 발전을 생각한다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고 방식을
빨리 버리길 바랍니다.

노와 사는 상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루 빨리 느끼시길 바랍니다.

**위원장의 이번 부산행은 어느 한 명의 특정인만을 향한
경고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자 시스템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
애사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사측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.**